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기태¹ · 하유정¹ · 오난영¹ · 김소연¹ · 권민지¹ · 이나현¹ · 이유리¹ · 양경희²

¹원광보건대학교 졸업생 · ²원광보건대학교 교수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Ki Tae, Jung¹ · Yu Jeong, Ha¹ · Nan Young, Oh¹ · So Yeon, Kim¹
Min Ji, Kwon¹ · Na Hyun, Lee¹ · Yu Ri, Lee¹ · Kyung Hee, Yang²

¹Graduated from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Professor of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during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for descriptive study from 200 students in I city from June 5 to 12, 2017.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Scheffè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19.0. **Results** :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scored 3.59 point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was scored 3.82 points out of 5 on averag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higher under the age of 29($t = 2.78, p = .014$), male students($t = 2.70, p = .008$), and third grade($t = 3.53, p = .001$).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sonal relationship($r = .26, p < .001$), period of clinical practice ($r = .17, p = .019$), and professional values($r = .576, p = .000$). Nursing professional values was positively relate to personal relationship($r = .34, p < .001$), and colleague relationship($r = .20, p = .004$). The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grade($\beta = .236$), gender($\beta = .162$), personal relationship($\beta = .172$), & religion ($\beta = .145$) and explained 13.8% of it.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beta = .527$) and personal relationship($\beta = .209$) explained 36.7%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nhanc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to explore the affecting factors on the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ofessional valu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현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과학의 발달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수명 연장과 보건의료제도의 개편은 의료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의료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도 향상되어 높은 수준의 간호제공과 개인의 존엄성 유지 등 대상자권리 보장을 포함한 윤리적인 고려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직업에 임해야 할 간호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간호요구에 따르는 질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간호교육자는 간호교육프로그램에서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적합한 전문적 가치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1].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들이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지각 등의 전문직관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2]. 간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지각 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야 간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전문직업관을 간호전문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관은 학문 분야에서 개념의 질 또는 가치와 행위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3],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이미지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과정 및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이며[4], 이것은 가치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들을 제공한다[5].

Choy[6]는 교원, 경영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또는 심리학자이거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갖춘 수준에 상관없이 ‘순

간적인 판단’,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직업관’ 및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를 전문직의 효율성의 기준이라고 하였다. Ham과 Kim[7]은 간호사는 직면한 간호현장이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실무현장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간호의 미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상황에서 의료과학이 발달될수록 전문적 지식이 갖추어진 간호사의 판단력의 중요성과 간호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가가 전문직의 효율적인 표준이 된다는 점이 오늘날과 같은 변화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보여준다. 간호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의료요구의 양적 증가와 첨단의학의 발달은 간호사들에게 계속하여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간호사들은 의료환경에서 타 전문 인력에 비해 다양한 의료인, 타 부서 직원 및 간호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간호사의 사기가 고취되고 간호사의 의사결정역량 증진을 통한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간호사의 이직 충동도 감소되어 이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8]. Moon과 Han[9]은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이 높으면 조직몰입의 형성이 증진되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한다. Karen과 Anne[10]은 간호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의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전문직관을 습득하여 직업에 사회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전문직관은 기관의 정책, 절차, 직무기술, 역량평가 및 전문직의 역할개발을 강화하는 병동기반의 간호표준과도 소통되고, 기관의 직원에 의한 자가평가 연습, 멘토링 경험, 기술 교육 및 역할 모델링을 통해 운용하면서 개인적 가치와 조직의 가치와 통합된다고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과 상관관계가 있고, 전문직

관 중 전문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11].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로는 간호전문직관에는 간호사 자신의 직업에 대한 관점, 타인의 관점, 어떤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 등과 관련되고 간호 이직 의도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호미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며,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들이 모델링되거나 다른 인력들로부터 사회화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임상현장의 간호사나 임상실습여건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Yang 등[12]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이론지식을 임상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면서 간호사의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이 4년제로 승격되어 현재 약 200개 대학이 간호학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기관 부족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여 학생지도에 투입할 여력이 부족하면서 실습생들은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실습 이전에 가졌던 기대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간호직에 대한 회의감과 간호사의 역할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직접적인 간호경험의 부족과 다양성의 한계, 의료 인력의 무관심과 무례한 응대 등을 경험한다[13]. 이러한 부정적인 임상실습 환경은 간호학생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고 만족스럽지 못한 임상실습경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Cho와 Kim[14]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직업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전망 있는 직업으로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거나 사회적 지위, 존경 및 자율성의 이미지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전문성과 역할인식에는 긍정적으로 인식으로 변화하였으나, 간호사 자질과 직업적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Seong 등[15]은 간호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의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것은 학생에게 전문직관을 향상시켜, 졸업 후에 임상현장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데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보다 경험하지 않은 학년이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은 임상실습의 교육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가 시급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연구자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1시에 소개하고 있는 4년제 간호학과 W 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4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설정하여 전체표본은 172로 산출되었으나 설문지의 회수율을 고려하여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06월 05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응답에는 개인당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배부한 설문지 총 200부를 전부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은 Cho와 Kang[16]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17]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8]이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 중 Ji[19]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3문항(17, 26, 28)은 삭제하고, 11문항(3, 5, 6, 10, 15, 18, 22)을 수정한 도구를 참고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총 31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실습지도자 수와 실습시간에 대한 3문항(17, 26, 28)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Ji[1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제거하면 신뢰도가 향상되는 4개의 문항을 제거한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6개 하위요인 '실습지도' 5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환경' 5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2문항, '실습교과' 3문항으로 구분되었으며, 하부영역의 Cronbach's α 는 실습지도 .79, 실습내용 .79, 실습환경 .78, 실습시간 .78, 실습평가 .81, 실

습교과 .76이었다(Table 1).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3문항(6, 9, 18)은 역환산하였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oon 등[2]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20]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n 등[2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하부영역의 Cronbach's α 는 전문직 자아개념 .62, 사회적 인식 .68, 간호의 전문성 .62, 간호의 독자성 .80이었다. 부정적인 2문항(17, 18)은 역환산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윤리교육을 받았으며, 대학 내 간호과학연구소에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제출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없음을 심의 받았다. 자료수집 실시 전 3, 4학년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서 동의서를 받고, 자가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연구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하였고, 설문조사 후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tem No	Variables	Reliability			Components					
		Cronbach's α	Sub-total Cronbach's α	Total Cronbach's α	F1	F2	F3	F4	F5	F6
1	Lead in an interesting direction	.909	.79		.807	.138	.142	.129	.165	.095
2	Assiduous guidance	.909			.764	.120	.106	.325	.015	.129
3	Enough guidance	.907			.747	.192	.192	.296	.205	.043
4	Lead attention to	.908			.742	.069	.132	.056	.282	.249
5	Guide for application to Theoretical practice	.909			.704	.144	.078	.259	-.037	.317
6	Conducting a nursing care program	.911			.263	.708	.317	.108	.049	.099
7	Priority of nursing application	.912	.090	.697	.174	-.059	.136	.179		
8	practical training of ward, patient' room work	.912	.79		.017	.622	.153	.227	.054	.094
9	Nursing care attended by nursing care	.908			.278	.580	.165	.178	.156	.238
10	Categorized by practical practice of curriculum	.913			.057	.477	-.252	.072	.368	.384
11	A new experience	.913			-.018	.439	-.113	.324	.388	.045
12	Organization and parts adequacy	.910			.125	.109	.717	.085	.175	.138
13	Location for lectures and gathering meetings	.909			.149	.271	.677	.207	.045	.130
14	Number of students in the lab is appropriate	.911	.78		.027	.115	.547	.193	.172	.259
15	Suited hours of practice by subject	.909			.313	-.042	.454	.048	.461	.344
16	The proper tension in the practical place	.908			.234	.168	.432	.250	.384	.176
17	Number of meetings with the Number of Practice Journalists	.908			.160	.156	.120	.798	.182	.193
18	Time-fitting	.909			.179	.144	.187	.796	.006	.197
19	Collection session time Hands-on experience and learning	.910			.246	-.010	.145	.629	.239	.123
20	Evaluation criteria Information delivery	.913	.81		.090	.036	.071	.068	.863	.009
21	Evaluation methods satisfaction	.909			.075	.152	.365	.214	.657	.112
22	Suited for Subject matter practice according to practical place	.911			.093	.019	.027	.165	.237	.774
23	Different experiences during clinical practice	.910			.185	.136	.313	.138	-.145	.703
24	Availability of learning materials	.908			.094	.269	.395	.236	.070	.541
Eigenvalues					3,374	2,514	2,477	2,462	2,257	2,189
% of Variance					14,057	10,475	10,320	10,258	9,404	9,121
Cumulative %					14,057	24,533	34,852	45,110	54,515	63,636

F1 : Practice instruction F2 : Practice content F3 : Practice environment F4 : Practice time F5 : evaluation F6 : Subject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은 Mean (평균) 및 SD(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è test(사후검정)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예측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ean±SD(Min-Max)
Age	≤29	184	92.0	
	≥30	16	8.0	
Gender	Male	21	10.5	
	Female	179	89.5	
Grade	3rd grade	86	43.0	
	4rd grade	114	57.0	
Religion	Yes	115	57.4	
	No	85	42.5	
Period of clinical practice	<3months	27	13.5	
	3months≤, <6months	46	23.0	
	≥6months	127	63.5	
Institution to work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118	59.0	
	General hospital	60	30.0	
	The others	22	11.0	
Role model	Yes	128	64.0	
	No	72	36.0	
Target of role model*	University supervisor	10	7.80	
	Head nurse	60	46.9	
	Practical nurse	58	45.3	
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32	16.0	
	Good	117	58.5	
	Moderate	51	25.5	3.88±0.73
	Bad	0	0	(1-5)
	Very bad	0	0	
Colleague relationship	Very good	38	19.0	
	Good	103	51.5	
	Moderate	55	27.5	3.9±0.64
	Bad	4	2.0	(1-5)
	Very bad	0	0	

* N=128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29세 이하 184명(92%), 30세 이상 16명(8%)이며, 성별은 여자 179명(89.5%), 남자 21명(10.5%)이었다. 4학년은 114명(57.0%), 3학년은 86명(43.0%)이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115명(57.5%), 종교가 없는 학생은 85명(42.5%)이었다. 졸업 후 원하는 취업기관으로는 대학병원 118명(59.0%), 병원 60명(30%), 기타 의원급, 공무원, 해외간호사 등이 22명(11%)이었고, 임상실습 경험기간은 3개월 미만이 27명(13.5%), 3~6개월 46명(23.0%), 6개월 이상 127명(63.8%)이었다.

역할모델이 있는 학생이 128명(64.0%)이었으며, 역할모델 대상자가 실습부서의 수간호사라고 응답한 학생이 60명(30.0%), 일반간호사 58명(45.3%)이었다. 대인관계 수준은 ‘아주 좋다’, ‘좋다’, ‘보통이다’에 각각 32명(16%), 117명(58.5%) 및 51명(25.5%)이 응답하였고, 나쁘다, 매우 나쁘다는 없었으며 평균점수는 3.88점이었다. 동료와의 관계는 ‘아주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에 각각 38명(19.0%), 103명(51.5%), 55명(25.5%) 및 4명(2.0%)이 응답하였고, 매우 나쁘다는 없었으며 평균점수는 3.91점이었다(Table 2).

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수준 정도

자료 분석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59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실습시간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평가 3.67점, 실습환경 3.58점, 실습내용 3.55점, 실습지도 3.54점 및 실습교과 3.51점 순이었다.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평균 3.82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간호의 독자성 4.27점이 가장 높았고, 간호계의 역할 3.97점, 간호의 전문성 3.92점, 전문적 자아개념 3.86점 및 사회적 인식 3.50점 순이었다(Table 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 29세 이하가 3.61점으로 30세 이상의 3.31점 보다 높았고($t=2.48, p=.014$), 성별에서는 남학생 3.85점, 여학생 3.56점으로 남학생이 높았다($t=2.67, p=.008$). 학년에서는 3학년 3.72점, 4학년 3.49점으로 3학년이 높았으며($t=3.53, p<.001$), 종교가 있는 학생이 3.66점, 종교가 없는 학생이 3.49점으로 종교가 있는 학생

Table 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N=200)

	M±SD	Minimum	Maximu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59(0.47)	2.38	5
Practice contents	3.55(0.52)	2.50	5
Practice guidance	3.54(0.68)	1.60	5
Practice time	3.80(0.66)	2.00	5
Practice subjects	3.51(0.63)	1.00	5
Practice environment	3.58(0.62)	2.20	5
Practice evaluation	3.67(0.72)	1.00	5
Nursing Professional Values	3.82(0.47)	2.17	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86(0.56)	2.00	5
Social awareness	3.50(0.70)	1.80	5
Originality of nursing	4.27(0.58)	3.00	5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2(0.54)	2.33	5
Roles of nursing service	3.97(0.60)	2.00	5

이 높았다($t=2.66, p=.006$). 임상실습기간에서는 3개월 미만 3.62점, 3~6개월 3.79점, 6개월 이상 3.51점으로 3~6개월 실습경험자가 3개월 미만이나 6개월 이상보다 높았으며 Scheffè test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F=1.38, p=.002$).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 3.84점으로 좋은 사람 3.58점에 비해 높았으며, Scheffè test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F=7.38, p<.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9세 이하가 3.84점으로 30세 이상의 3.61점 보다 높았고($t=1.82, p=.071$), 남학생 3.96점,

여학생 3.81점으로 남학생이 높았다($t=1.43, p=.155$). 학년별로는 3학년 3.88점, 4학년 3.78점으로 3학년이 높았으며($t=1.49, p=.137$), 종교가 있는 학생이 3.84점, 종교가 없는 학생이 3.80점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0.60, p=.552$). 임상실습기간에서는 3개월 미만 3.89점, 3~6개월 3.89점, 6개월 이상 3.79점으로, 3~6개월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0.22, p=.363$).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4.18점이 좋은 사람 3.80점보다 높았으며 Scheffè test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F=14.74, p<.000$). 동료관

Table 4. Th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Characteristic	Categories	Satisfaction for Clinical tic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M±SD	t or F(p)	Scheffè	M±SD	t or F(p)	Scheffè
Age	≤29	3,61±0,48	2,48		3,84±0,46	1,82	
	≥30	3,31±0,39	(.014)		3,61±0,50	(.071)	
Gender	Male	3,85±0,40	2,67		3,96±0,70	1,43	
	Female	3,56±0,47	(.008)		3,81±0,43	(.155)	
Grade	3rd grade	3,72±0,48	3,53		3,88±0,45	1,49	
	4rd grade	3,49±0,45	(.001)		3,78±0,48	(.137)	
Religion	Yes	3,66±0,47	2,66		3,84±0,46	0,60	
	No	3,49±0,48	(.006)		3,80±0,48	(.552)	
Period of clinical practice	<3months	3,62±0,58			3,89±0,49		
	3months≤, <6months	3,79±0,35	1,38	a<b	3,89±0,34	0,22	
	≥6months	3,51±0,46	(.002)	b>c	3,79±0,50	(.363)	
Institution to work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3,60±0,46			3,83±0,48		
	General hospital	3,57±0,44	0,04		3,81±0,41	.010	
	The others	3,55±0,57	(.826)		3,84±0,56	(.958)	
Role model	Yes	3,62±0,46	1,18		3,87±0,46	1,83	
	No	3,54±0,48	(.241)		3,74±0,47	(.069)	
Target of role model	University supervisor	3,65±0,42			3,85±0,17		
	Head nurse	3,66±0,52	0,19		3,89±0,50	0,24	
	Practical nurse	3,58±0,40	(.458)		3,85±0,42	(.353)	
	The others	3,59±0,47			3,81±0,47		
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3,84±0,48			4,18±0,51		
	good	3,58±0,45	7,37	a>b	3,80±0,38	14,74	a>b
	moderate	3,45±0,44	(.001)		3,65±0,51	(<.001)	
Colleague relationship	very good	3,68±0,42			4,00±0,44		
	good	3,58±0,45	.71		3,82±0,40	3,35	
	moderate	3,55±0,53	(.545)		3,76±0,58	(.020)	
	bad	3,48±0,59			3,39±0,47		

계는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나($F=3.35, p=.020$), 항목의 사례수가 적어 Scheffé test에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4. 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동료와의 관계와 정상관관계를 보였고($r=.61, p<.001$), 임상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r=.26, p<.001$)와 임상실습기간($r=.17, p=.019$) 간에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r=.34, p<.001$), 동료관계($r=.20, p=.004$), 임상실습만족도($r=.58, 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5.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인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인관계, 임상실습기간 중 명목척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고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검정을 진단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공차한계의 범위는 .913~.982로 0~1이며, VIF는 1.018~1.110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중선이 낮아 예언변인간의 상관성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잔차분석 결과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719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Table 5. Correl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sonal relationship	Colleague relationship	Period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sonal relationship	1				
Colleague relationship	.61 ($<.001$)	1			
Period of clinical practice	.09 (.208)	.06 (.412)	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26 ($<.001$)	.10 (.162)	.17 (.019)	1	
Nursing professional values	.34 ($<.001$)	.20 (.004)	.09 (.204)	.58 ($<.001$)	1

Table 6. Effect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Variables	Categories	β	SE	β	t or F	p
Constant		3,354			61.86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Grade	.222	.063	.236	3.51	$<.001$
	Gender	.247	.105	.162	3.34	.001
	Personal relationship	.218	.057	.172	2.50	.013
	Religion	.137	.088	.145	2.18	.030
$R^2 = .155, \text{Adj. } R^2 = .138, F = 8.98, p < .001$						
Constant		1,885			9.05	$<.001$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529	.058	.527	9.07	$<.001$
	Personal relationship	.267	.074	.209	3.60	
$R^2 = .373, \text{Adj. } R^2 = .367, F = 58.56, p < .001$						

가정을 만족하여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임상실습만족도에는 학년($\beta=.236$), 성별($\beta=.162$), 대인관계($\beta=.172$), 종교 유무($\beta=.145$)가 영향을 주었으나, 설명력은 13.8%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서는 공차한계의 범위는 .044와 0.944로 0~1이고, VIF는 1.050과 1.059이며, Dubin Watson 검정결과가 1.936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임상실습만족도($\beta=.527$)와 대인관계($\beta=.267$)의 설명력은 36.7%였다(Table 6).

IV. 논 의

간호대학생의 정원은 증원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4%를 상회하고 있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차원의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조직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간호교육면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상현장을 떠나지 않고 간호의 발전과 건강강한 사회에 대한 기여하도록 필요한 교육 요구 및 고려할 요인들을 탐색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탐색하며, 어떤 요인들이 이들에 기여하는가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59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실습시간과 실습평가에는 3.80점과 3.67점으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실습환경 3.58점, 실습내용 3.55점, 실습지도 3.54점 및 실습교과 3.51로 만족도가 낮았다. Jung[2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가 3.73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로 4.14점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환경 3.54점과 실습내용 3.58점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해보면 실습환경은 다소 좋아졌으나 실습지도, 실습교과 및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학의 각종 평가제도의 결과 실습체계는 확립되었으나, 교수의 업무량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인적, 시간적 한계로 인한 실습지도, 실습내용 등에 대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3학년은 3.72점, 4학년은 3.49점으로 4학년이 더 낮았고, 임상실습기간을 보면, 3~6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나 6개월 이상보다 높은 점은 Ji[19]의 연구의 3년제 간호과의 경우 2학년이 3.57점, 3학년이 3.45점으로 3학년이 낮은 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두 번째 해에 첫 번째 해보다는 실습경험을 많지만, 만족도가 낮은 점은 실습경험을 많이 하면서 기대하는 실습내용과 수준이 충족되지 않아 비판의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Ham과 Kim[7]의 연구에서는 3년제 대학의 졸업반에는 3.14점, 4년제 졸업반에서는 3.28점으로 4년제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 같은 졸업 학년이더라도 4년제의 학제를 다닌 졸업반은 1년의 기간 동안 더 성숙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해진 것에 기인한다고도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85점, 여학생은 3.56점으로 남학생이 높았는데, Koo와 Im[34]의 연구에서도 3, 4학년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4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3.59점, 여학생은 3.14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Park과 Han[24]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관련시켜 볼 수 있어 추후연구에서 탐색되는 것이 고려된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이 모두 높았으며, Cho와 Lee[11]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가 높은 학생들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심리적지지 등을 받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Koo와 Im[23] 및 Park과 Han[24]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는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인관계와 종교가 간호대학생에게 정신, 심리적인 지원이 되어 임상실습만족도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8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4.27점으로 아주 높았으며, 간호사의 역할, 간호의 전문성 및 전문직 자아개념 등은 3.97점, 3.92점 및 3.86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사회적 인식은 3.50점으로 낮았다. 간호전문직관 중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점은 간호사 자신의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나 보상이 전문직에 상응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가치 인식의 향상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전문직관은 연령이 낮은 학생과 역할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높았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할 모델의 46.9%가 수간호사, 45.3%가 일반간호사임을 볼 때, 실제 병원에서 실습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학생들의 역할모델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행위를 할 때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함으로써 사물, 상황, 장면들을 대할 때 느끼고 해석하고 행위를 하는 데 영향을 주므로 간호사의 간호활동에 매우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다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도 감소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임상에서 만나는 선배간호사 및 다른 인력 등의 영향과 병원의 정책, 멘토링경험, 역할 모델링 등 교육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볼 때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기간과 정상관관계를 보였고($r=.26, p=.019$),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와 매우 관련성이 높았으며($r=.58, p<.001$), 대인관계와 동료관계($r=.34, p=.001, r=.20, p=.004$)와도 정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관계와 동료와의 관계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61, p<.001$).

평균값 비교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인관계, 임상실습기간 등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이들 4개의 변수가 13.8%를 설명

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간호전문직관을 36.7% 설명하였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Ham 등[25]과 Seong 등[15]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의 이미지가 $r=.73(p<.001)$ 과 $r=.75(p<.001)$ 로 가장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고, Hwang과 Shin[26]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영향을 주었으며, Han 등[20]의 연구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Hong과 Song[27]은 핵심간호술 지식이 임상실습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Park 등[28]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29].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에 의한 영향은 있으나,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임상경험이 많은 4학년이 3학년 보다 수준이 낮은 점을 볼 때 학년별로 실습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인 점을 볼 때 종교생활을 통한 성숙한 가치관의 정립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볼 때, 간호대학생에 대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과 대인관계 능력에 바탕된 실무의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개발,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핵심간호술기 지식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 간호중재나 실습교육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지도 시 실습내용과 지도상의 질적 개선을 고려한 임상실습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개선 등을 고려한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7년 06월 05일부터 06월 12일까지 1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학과 1개교

에서 4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19.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임상실습만족도의 평균은 3.59점(최고 5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실습시간 3.80점, 실습평가 3.67점, 실습환경과 실습내용 3.58점, 실습지도 3.54점, 실습교과 3.51점 순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평균 3.82점(최고 5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간호의 독자성 4.27점, 간호계 역할 3.97점, 간호의 전문성 3.92점, 전문직 자아개념과 3.86점, 사회적 인식 3.50점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연령($t=2.48, p=.014$), 성별($t=2.70, p=.008$), 학년($t=3.52, p=.001$), 종교($t=2.67, p=.006$) 및 대인관계($F=7.38,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 대인관계($F=14.74, p<=.001$)에 차이가 나타났다.
5. 임상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r=.26, p<.001$), 임상실습기간($r=.17, p=.019$)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r=.34, p<.001$), 동료관계($r=.20, p=.004$) 및 임상실습만족도($r=.58, p=.001$)와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동료와의 대인관계에서도 정상관관계를 보였다($r=.61, p<.001$).
6. 임상실습만족도는 학년, 성, 대인관계, 종교유무가 13.8%를 설명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는 간호전문직관의 36.7%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에서 지도 내용을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습 경험 기간에 따른 실습 내용 및 범위나, 수준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 간 의사소통 뿐 만 아니라 임상에 있는 의료전문직들과의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통한 대인관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려된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간호사의 이미지, 임상실습스트레

스 대처방식, 간호술기 수행능력 등의 요인을 추가하여 영향요인을 좀 더 밀도 있게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상실습지도에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경험하도록 임상실습교육이 운영되고, 간호사에 대한 양적, 질적 간호요구 수준에 맞게 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간호대학생, 간호사 자신들의 자아 성장,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능력과 정당한 요구, 임상실무현장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나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한 것을 제언한다.
2.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교과목과 학년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4. 간호전문직에 대한 간호사 자신의 인식 및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Fisher M. A Comparison of professional value development Among pre-licensure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14;35(1):37-42.
2. Yoon EJ, Kwon YM, A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3. Leners DW, Roehrs C, Piccone AV. Tracking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6;45(12):504-511.
4. Weis D, Schank MJ. Towards building an interna-

- 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ing Educational Today*. 1997;7:366-369.
5.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0;32(2):201-204.
 6. Choy CH. Item construction of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延世論叢*. 1972;9(1):65-85.
 7. Ham YS, Kim HS.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19(3):363-373.
 8. Yoon HK., Cho JH., Lee EY, Lee HY, Park MJ.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9(5):658-667.
 9. Moon YS, Han S.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1):72-79.
 10. Cho HJ, Lee JY. A Study 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16(12):8498-8508.
 11. Karen LE, Anne MK, Bridging the gap: A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students, New graduates, and seasoned professionals, *Nursing Education Research* October/ September. 2009;30(5): 279-284.
 12.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215-225.
 13. Yang KH, Ko GY, Ko JO, Kim R, Kim JY, Kim YY, Park BJ, et al,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7;1(1):59-74.
 14. Cho HH, Kim, NH.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20(4): 548-557.
 15. Seong JA, Yeom EY, Do YS.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14(11):798-809.
 16.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Nurses Academic Society*. 1984;14(2):63-74.
 17. Lee SE.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2):333-347.
 18.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19. Ji E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master's thesis]. Kwngju: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3. p.1-41.
 20.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21. Jung KS, Joo HJ. Mandatory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w nurses.....need government.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8 February.1;sect. 01.
 22. Jung JS.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s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1):53-61.
 23. Koo HY, Im HS.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ntents*. 2013;13(1):312-321.
24. Park WJ, Han JY.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 17(3):365-375.
25. Ham YS, Kim H, Cho IS, Lim JY.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3):536-544.
26. Hwang EH, Shin SJ.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Nursing*. 2017;31(1):97-108.
27. Hong JJ, Song CS. Essential basic Nursing skill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6;21(12):147-156.
28. Park BJ, Park SJ, Cho H.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 220-227.
-